

살아내기와 살려내기

— Our Mutual Friend의 하층민상 —

김 성 호

1.

이 소설이 그리는 ‘하층민상’을 살펴보는 것은, 다른 Dickens 소설에서와 마찬가지로, 곧 소설 전체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로 이어진다. 이는 그가 하층민만을 그렸다거나 그들의 사회적 운명에만 관심을 가졌다는 말과는 전혀 다를 뿐아니라 오히려 정반대를 의미한다. 그의 소설에서 하층민의 삶과 의식은 중산층 및 상류계급의 삶과 의식과 불가분의 관계로 얹혀서 하나의 ‘시대상’을 구성하는 데로 승화되어 있다. 이 시대상을 지배하는 것은 역시 ‘만물을 자기 이미지에 따라 재창조하는 돈의 힘’이라 하겠는데, 하층민들의 삶은 한편으로 이 지배적 힘 아래 놓여 있으면서 다른 한편으로 물질적, 도덕적인 면에서 그 돈의 힘에 저항함으로써 중상류층의 삶에 대비되는 또 다른 삶의 모형을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자기 사회를 하나의 전체로서 묘사하면서 그 사회 전반의 ‘체질’을 드러내고 그것을 개선할 동력을 찾는 데 관심을 가진 작가의 작품을 이러저러한 ‘상’들로 쪼개놓는 테는 무리가 따르기 마련이다. 이 소설 속의 하층민상을 살피는 것은 그러므로 Dickens의 시선이 포착한 당대 사회의 전체적 모습을 염두에 두고서만 가능한 일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소설의 제목이 가리키는 ‘상호성’(mutuality)은 의미심장하다. 여기서의 상호성은 물론 (그 원뜻과는 달리) 양자간의 관계가 아니라 삼자간의 관계에 해당하는 말이다. ‘그’가 ‘나’ 와도 친구이고 ‘너’ 와도 친구인 경우 ‘나’ 와 ‘너’ 사이 — 얼마간 가까울 수도 있고 처음 만났을 수도 있는 — 에서 ‘그’를 가리키는 말이 ‘our mutual friend’ 인 것이다. Freud나 Lacan의 이론을 빌지 않더라도 양자간 관계와 삼자간 관계에 큰 질적 차이가 있음을 알기는 어렵지 않다. 공동체의 관점에서 보면 양자간 관계는 막힌 것, 거기에서 끝나는 것인 반면 삼자간 관계는 열린 것, 즉 무한히 확대가능하면서도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하는 원리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전자가 직접적이고 사적인 관계라면 후자는 매개된 관계, 혹은 ‘증인’이 있는 공적인 영역이다. 이러한 삼각적 상호성, 즉 제 3자에 의해 매개된 상호관계는 우리가 속한 다양한 사회적 관계들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이러한 상호관계는 넓은 의미에서 ‘이데올로기적인’ 관계이다. 위의 모델에서 ‘나’ 와 ‘너’의 관계는 ‘그’의 존재, 엄밀히 말하면 ‘그’ 와 ‘나’의 관계 및 ‘그’ 와 ‘너’의 관계에 의해 규정되고 있는바, 가령 ‘내’가 ‘너’를 의식할 때 — ‘너’를 응시하거나 ‘너’와 더불어 말하거나 어떤 일을 별일 때 — ‘나’ 와 ‘너’에 대한 ‘그’의 태도와 평가를 함께 의식하게 되기 마련이다. 이 경우 ‘그’의 태도와 평가는 것도 명확히 검증된 것이라기보다는 상

상(예상)된 것, 그러므로 ‘나’ 자신의 모종의 선행하는 의식에 의해 굴절된 것이다. 그러므로 삼각적 상호성을 원리로 한 공동체는 사회적 행위와 의식에 있어서 제3자에 의해 이중적으로 — 제3자 자신에 의해,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나’의 판단에 의해 — 매개되는 사회라 하겠다. 어떤 면에서 그것은 이해와 추측이, 자기의 인식과 타인의 시선이 필연적으로 뒤섞인 채로 엮여져가는 관계망이다. 첨언하자면, 여기서 타인의 시선을 수용하느냐 거부하느냐는 별개의 문제이다. 그것을 자각하고 거부하는 것, 즉 그것에 대해 투쟁하는 것은 그것을 수용하는 것 이상으로 그것과 깊은 연을 맺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역으로 이는 삶에 편재하는 물질적, 이데올로기적 매개를 표현하는 삼각적 상호관계라는 틀이 반드시 Foucault처럼 사회를 ‘감옥’으로 표상하도록 이끄는 것은 아니라는 말도 된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감시자가 개인의 내면에 언제나 영향을 끼치는 현상을 근대사회의 특징으로 내세우는 그의 관점은¹⁾ 위에 말한 삼각적 상호성의 틀을 인격체들 간의 관계 이상으로 확대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즉 위에 말한 ‘그’가 당장 우리 눈 앞에 보이는 존재라기보다 우리가 상상하는 존재이거나 혹은 우리가 의식하기도 전에 삶에 영향을 미치는 존재라면, 그것은 하나의 인격체가 아닌 어떤 것, 가령 사회적으로 지배적인 어떤 문화적 특징이나 권위일 수도 있을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과의 관계를 마치 한 인격체와의 관계인 것처럼 느끼는 경향이 있고, 이러한 인격화를 통해 우리는 그 문화적 특징에 동화되고자 하는 열망 혹은 그것을 거부하려는 의지를 더욱 선명한 형태로 지니게 된다. (가령 Charley가 지배적 가치규범을 전적으로 Bradley라는 하 나의 인격체 속에 투사하는 것을 그 한 예로 들 수 있겠다).

*Our Mutual Friend*에 드러나는 모든 관계와 행동, 사건들이 위에 제시한 틀로 설명될 수 있는 것은 물론 아니다. 그러나 이 소설 내 하층민들의 삶과 의식을 규정하는 핵심적인 한 요인이 중상층의 삶과 의식이며, 이 후자는 위에 말한 ‘그’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다는 점은 분명하다. 중상층의 삶과 의식은 하층민들의 삶에 대해 하나의 항존하는 매개로 남아 있다. 하층민들 ‘끼리의’ 어떤 일, 어떤 대화에서도 우리는 거의 항상 중상층의 현실적 힘과 가치규범의 영향력, 혹은 그에 대한 하층민들의 힘겨운 저항의 모습을 발견한다. 가령 정규교육과정에 성공적으로(?) 입문한 Charley가 누이 Lizzie를 ‘몽상가’라고 비난할 때, 혹은 구빈원을 극도로 두려워하는 Betty가 Johnny의 별명 사실을 숨겨 끝내 그를 죽음에 이르게 할 때, 우리가 보는 것은 이런저런 모습으로 하층민들의 삶 한가운데에 끼어든 중상층의 힘인 것이다. 하층민들의 ‘건강성’이라는 것조차도, 그들의 삶 속에 마치 투명인간처럼 ‘거기’ 있어서 자신의 위력을 과시하려 하는 이 중상층의 현실적 힘과 도덕규범과의 대면 없이 그들 ‘끼리’ 만의 어떤 상호관계 속에서 형성된 것은 결코 아니다. Mr Boffin과 Lizzie에게서 보이는 선량함과 인내는, 원래 타고난 면도 있고 생활고를 서로 나누는 가운데 생겨난 면도 없지 않지만, 그에 못지 않게 그들의 삶에 영향을 끼친 중상층 사람들에 대한 도덕적 판단, 그들의 지배적 가치규범과의 말없는 싸움 속에서 자라난 것이다.

그러나 계급적 차원에서의 이러한 매개관계가 하층민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띠었는지를 살펴보면 이 모든 논의는 너무나 추상적으로 느껴진다. 그 의미를 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이 소설에 등장하는 술한 죽음들이다. 짚주려 죽고, 병나서 죽고, 사고로 죽고, 살해되어 죽고 …… 이 ‘시체들의 행진’은 그러나 하층민들의 삶 속에서만 목격된다. 빅토리아조의 중

1) Michel Foucault, *Discipline and Punish*(New York: Vintage Books, 1979). 특히 pp. 195-228의 ‘panopticism’에 관한 장 참조.

상층 사람들이 모두 ‘자연사’ 했다고 보는 것은 물론 넌센스에 불과하다. 그러나 ‘자연사’가 아닌 죽음이 그들에게보다 하층민에게 훨씬 가까이 있었다는 사실에 눈감는 것은 당대에나 지금이나 무지를 넘어 기득권자의 가공할 무관심에 가깝다. (이러한 무관심의 예로 Mr Podsnap을 보라!) 지금도 그러하듯이 이 ‘불의의’ 죽음은 순전히 개인적이거나 우연적인 문제는 아니었다. 우리는 부자의 도움을 거부하고 자력으로 살아가려 애쓰던 Betty의 객사, 혹은 궁지에 몰린 Bradley의 자살조차, 개인적 오류나 성벽에 그 원인이 있다기보다 당대의 경제, 사회, 도덕적 체제에 궁극적 원인이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된다. 따라서 하층민들의 생존을 위한 투쟁은, 그들이 의식을 하든 하지 않든간에, 단지 병마나 짖주림 따위와의 싸움만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조여오는 ‘체제’ 전체와의 총체적 싸움이었다. 이 ‘체제’ 야말로 하층민들이 대결해서 살아 ‘내야’ 했던 대상이고, 살아남기 위해 그들은 고된 노동을, 구걸을, 공갈질을, 심지어 살인을 행하고 또 일부는 주정뱅이가 되어 시체나 다름없이 일생을 보내야 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들의 삶과 정서에 대체로 공감하고 있었고 이들의 삶을 그저 생존투쟁의 마당으로 만들어버린 사회제도와 이데올로기들에 비판적이었던 Dickens이지만, 그가 하층민들 중에 무수히 발견되는 범죄자나 거지들의 삶의 방식을 두둔했던 것은 결코 아니다. 그는 열심히 일하면서 경제적으로 독립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서 가치있는 삶의 전범을 보았다. 일한다는 것이 그 자체로서 사회 전반을 구조적, 인간적으로 간신히 도덕적 가치들의 유일한 원천으로 제시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그 가치들은 (그것이 무엇이든) 열심히 일하는 경험과 불가분의 관련을 가진 것으로 그려지고 있으며, 일하는 삶의 그러한 가치들은 당대 사회의 지배적 질서에 대항할 어떤 징을 지닌 것으로 암시되고 있다. 가령 Roger Riderhood를 구해내는 마을사람들, 쓰러진 Betty에게 구조의 손길을 아끼지 않는 시장사람들, 물에 빠진 Eugene 을 필사의 힘으로 구해내는 Lizzie 등에게서 보이는, 사람을 살려내는 노력과 능력은 자신의 삶을 살아내기에도 벅찬 하층민들의 또 다른 면모로서, 하층민들의 죽음에 둔감해졌을 뿐 아니라 자기들끼리도 사리사욕에 따라서만 관계를 맺어가는 중상층의 삶의 자세와 대조를 이루면서 사회 전체를 진정한 공동체로서 살려낼 수 있는 힘의 상징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제까지 언급된, 하층민들의 삶의 모든 특징들 — 중상층의 현실적 힘과 가치규범에 의한 그들의 삶의 매개, 체제를 살아내기 위한 그들의 처절한 투쟁, 개인 뿐아니라 사회 전체를 살려낼 원동력이 되는 공동체적 가치들 — 은 이 소설에서 세 가지 부면에서 제시된다. 그것은 첫째, 교육, 둘째, 가난과 노동, 셋째, 사랑과 결혼이다.

2.

주지하듯이 빅토리아시대에 교육의 문제는 계급 차별의 문제와 긴밀히 연관되어 있었고, 따라서 계급적 문제를 다루는 이 시대의 많은 소설들이 교육의 문제에 주목했던 것도 당연하다. 돈에 지배되는 사회를 중점적으로 그리는 *Our Mutual Friend*에서 교육문제는 전면에 부각되고 있지는 않지만, 여기에 나오는 대부분의 하층민들이 교육에 대한 혹은 교육받은 자에 대한 각자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고 그러한 생각이 곧 그들의 계급적 존재기반 및 계급의식과 직결된 것으로 나타난다는 점과, 다른 한편으로 정규교육과 돈이 (교육의 동기, 기회, 효과 면에서)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는 것으로 그려져 있음을 생각해보면, 이 소설에서도 Dickens는

당대 교육의 문제점에 대해 상당히 의식적이고 총체적으로 접근하여 노력했음을 알 수 있다. 일자무식한 Gaffer의 교육에 대한 철저한 불신, 동생 Charley를 학교에 보내 '신사'로 만들고자 하면서 자신은 '귀부인'이 될 야심도 그럴 가능성도 없이 Riah로부터 일하는 투톱이 학습을 받는 Lizzie, 그녀와 더불어 일과 공부를 병행하는 Jenny, 교육을 철두철미 계층상승의 기회에 연결시키는 Charley와 Bradley, 정규교육의 혜택을 입지 못했지만 성경과 신문을 읽을 정도로까지 스스로 문자를 깨우친 Betty, 남의 밑에서 일하다가 부자가 된 연후에 '교양'을 쌓기 위해 Silas로 하여금 역사를 소리내어 읽게 하는 Mr Boffin, 역시 정규교육의 테두리 바깥에서 어찌어찌하여 문자를 깨우쳐 그것을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는 Silas — 교육에 대한 하층민 혹은 하층계급 출신들의 이러한 다양한 관계와 입장들은 곧 당대 교육제도 자체의 여러 얼굴이기도 하다. 우리는 우선 하층민들 사이에 교육에 대한 두 가지 상반된 태도가 엇갈리고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 교양을 위해서든 출세를 위해서든 교육의 혜택을 받기를 열망하는 것과, 교육의 수혜자와 나아가서 교육 자체를 불신하는 것. 그런데 이 두 가지 태도 중 어느 한 쪽은 반드시 옳고 다른 쪽은 그르다고 판가름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다. 가령 Gaffer의 교육에 대한 심한 불신은 일면 편견을 내포하지만, Charley를 비롯한 식자층의 일 반적 행태는 결국 Charley의 교육에 대한 Gaffer의 반대가 그의 교육을 장려하는 Lizzie의 기대만큼이나 그 나름의 타당한 근거가 있었음을 입증하고도 남는다. 그렇다고 Boffin처럼 갑자기 손에 들어온 돈의 일부를 '교양'을 쌓는 데 투자하거나 Lizzie와 Jenny처럼 먹고살기에 바빠 정규교육은 엄두도 못내는 처지에서 남의 도움으로 학습을 받는 것이 허영으로 느껴지지는 않으며, 이들의 예에서 보듯 그러한 학습의 결과가 — Gaffer가 염려하듯이 — 반드시 식자와 무식자 간의 괴리를 심화시키는 데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다. 작가는 여기서 아마도 교육의 필요와 교육의 폐단을 동시에 주장하는 듯하다. 단, 그 필요가 특히 절실한 것은 하층계급 사이에서인데, 이 필요성의 역설은 '범죄의 온상'인 하층계급의 '교화'에 대한 필요의 주장과 근본적으로 다른 차원의 것이다. 또 교육의 폐단이 특히 두드러진 것은 상층계급 사이에서인데, 이는 단순히 그들이 교육의 주된 수혜자여서가 아니라 그들의 계급적 존재기반이 교육의 내용과 결과를 당대의 바로 그 모습으로 규정하기 때문이다. 즉 교육이 그들을 '망친' 것이 아니라 반대로 그들의 삶의 조건이 교육을 망친 것이라는 이야기이다. 이와 관련하여 또 하나 눈여겨볼 것은 교육의 일반적 필요 또는 그에 대한 일반적 열망과 교육의 현실적 폐단 사이의 모순이 이 소설에서 정규교육과 비정규교육 사이의 대립으로 현상하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하층민들이 정규교육의 폐단을 얼마간 알고 있다고 해서 의도적으로 정규교육을 거부하고 비정규교육을 열망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들의 교육에의 열망은 (만일 실현된다면) 비정규교육으로 실현되는 수가 많고, 비정규교육을 통한 계층상승의 기회는 정규교육의 경우에 비해 훨씬 적을 뿐아니라 그 교육내용에 대한 지배이데올로기의 영향력도 상대적으로 느슨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정규교육은 당대 교육제도의 모든 폐단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반면 비정규교육은 그 폐단을 상대적으로 적게 지니고서 하층민의 교육에 대한 필요 혹은 열망을 담아내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Dickens의 이상은 물론 비정규교육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정규-비정규교육의 대립 자체가 없어지는 선까지 정규교육의 기회를 하층민에게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또한 학교와 정규교육 수혜자들에 대한 이 소설에서의 비판에서 보듯, 그러한 확대가 단지 재정만 확보되면 실현가능해지는 양적인 확대에 머물 수도 없고 머물러서도 안된다는 점, 교육기회의 확대는 교육의 내용과 형식을 지배하는 계급적 이데올로기와

자본주의 사회의 ‘철학’인 돈의 순환 원리에 (적어도 당대에는) 역행하는 측면을 지닌다는 점을 그가 몰랐을 리 없다.

다시 Gaffer로 돌아가 보자. 그가 자식들의 교육에 반대하는 것은 재정적 이유 때문만은 아닌데, 그 또다른 이유는 Lizzie의 입을 통해 밝혀진다.

I can't so much as read a book, because, if I had learned, father would have thought I was deserting him, and I should have lost my influence. (72)²⁾

자식의 학력쌓기와 출세가 대부분 부모의 안락과 지위상승으로 이어지는 요즘의 우리 사회의 (특히 도시민들의 삶의) 실정에서는 잘 이해되지 않는 대목이나, 당대 사회에서 교육받은 자와 교육받지 않은 자의 차이가 경제적, 문화적 차이일 뿐만 아니라 사회계급을 가르는 차이라는 점을 다시 상기한다면, 왜 Gaffer가 교육받은 자식은 자기를 저버릴 것이라고 생각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 무식은 Gaffer 모녀를 잇는 가족적 ‘유대’(tie, 73)였는데, 이것이 단지 Gaffer의 편견이나 그의 가정적 특이성에 따른 현상이 아니라 사회적 토대를 지닌 문제였음은, Charley가 집을 나가기 전 화롯가에서 그의 앞날을 누이 Lizzie가 그려보이는 애틋한 장면에서 이미 시사되고 있다.

'You come to be a pupil-teacher, and you still go on better and better, and you rise to be a master full of learning and respect. But the secret has come to father's knowledge long before, and it has divided you from father, and from me.'

'No it hasn't!'

'Yes it has, Charley. I see, as plain as plain can be, that your way is not ours, and that even if father could be got to forgive your taking it (which he never could be), that way of yours would be darkened by our way....' (72-73)

빈민학교(the Ragged Schools)의 하나인 어느 ‘쓰레기더미같은 학교’(a jumble of a school)에 입학한 Charley가 몇 년후 누나 앞에 나타나 하는 말들은 Lizzie가 전에 Charley의 미래로서 기대했던 ‘respectability’란 것의 실체가 어떠한 것인지를 그녀로 하여금 깨닫게 해준다. Charley는 우선 Lizzie가 왜 좀 ‘건전한 동네’(some Christian sort of place)에 자리잡지 않았느냐고 헐책한다(277). 이어지는 대화에서 두 사람의 현실의식은 극명히 대조된다.

'You are such a dreamer,' said the boy, with his former petulance. 'It was all very well when we sat before the fire — when we looked into the hollow down by the flare — but we are looking into the real world, now.'

'Ah, we were looking into the real world then, Charley!'

'I understand what you mean by that, but you are not justified in it. I don't want, as I raise myself, to shake you off, Liz.... Don't pull me back, and hold me down. That's all I ask, and surely that's not unconscionable.' (278)

2) 이 글에서 *Our Mutual Friend*의 텍스트는 Penguin판(Harmondsworth, 1985)을 사용했다.

Charley의 ‘현실’은 인간의 가치가 ‘증’(certificate)으로 평가되는 세계이다. 후에 Charley가 자기 누나에게 접근하는 Eugene을 못마땅해하면서 자기 선생 Bradley를 Lizzie의 개인교사로 추천할 때, 그는 Bradley를 ‘the most competent authority, as his certificates would easily prove, that could be produced’라고 묘사한다(343). 이러한 객관적 ‘증거’에 의거해 그는 Bradley를 배우자로 맞아들이기를 거부하는 Lizzie에게 다음과 같이 말한다: ‘... Do you know that he is worth fifty of you?’(459). ‘worth fifty of you’라는 말에서 우리는 삶의 계량화 경향, 즉 한 인생의 가치를 끊임없이 양적 단위로 바꾸어 측정하는 경향을 읽을 수 있는데, 이는 한 사람이 가진 돈으로 그의 삶의 질이 결정되는 부르조아사회에 일반화된 습성 가운데 하나이다.

한편 Bradley 자신은 많은 학생 중에 묘하게도 Charley에 대해 애착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그들의 공통된 ‘과거.’ 그리고 비슷한 감수성에 그 이유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들은 모두 하층계급 중에서도 가장 밑바닥 출신으로 지독한 가난을 경험했고, 정규교육을 거쳐 교사가 됨으로써 계층상승을 달성하려는 포부를 지니고 있고, 가족이나 과거사 때문에 자신들의 출신계급으로 다시 끌어내려질 위험에 항상 공포에 가까운 두려움을 가지고 있으며, 자신과는 달리 본디 신사계급에 속한 사람들 — 소위 ‘respectable persons’ — 앞에서 심한 컴플렉스를 느끼는 것이다. 어린 시절 거지였던 Bradley는 주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될까 전전긍긍하며 Charley 보다 더더욱 자신의 ‘출신’ 문제에 히스테리컬한 반응을 보임으로써 오히려 원치 않는 결과를 자초하게 된다. 예컨대 Eugene은 Bradley를 두고, ‘[a] curious monomaniac. The man seems to believe that everybody was acquainted with his mother!’(347)라고 비아냥거리며, Riderhood는 체면(respectability)에 광적으로 매달리는 Bradley의 특성을 간파하여 이를 공갈에 이용한다

‘... Yours is a ‘spectable calling. To save your ‘spectability, it’s worth your while to pawn every article of clothes you’ve got....’ (871)

게다가 Bradley의 성(Headstone)이 암시하듯이 그의 공부는 전혀 창조적이지 못하다. 그의 머리는 ‘기계적으로 지식을 쑤셔넣는 곳’(a place of mechanical stowage, 266)이었고, 지식을 일단 쑤셔넣은 후에 그는 ‘자신의 정신적 창고에서 무엇 하나라도 빠져나갈까봐 항상 불안해 하는 듯했다’(he seemed to be always uneasy lest anything should be missing from his mental warehouse, 276). 그에게 있어 ‘지식’이란, 마치 돈처럼, 이미 누군가가 만들어놓은 것이며, 소유할 대상이며, 소유자의 인간적 가치를 증폭시키는 마력을 지닌 어떤 것이다.

자신의 사회적 지위에 대한 Charley와 Bradley의 불안감은 애당초 그들이 교육을 자신의 출신계급으로부터 ‘빠져나오기 위한’ 수단으로 삼은 데에 일차적으로 연유한다. 이에 더하여 범죄와 무지, 부도덕한 생활태도 등이 가난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음을 강조한 신사교육은 그들로 하여금 자신의 출신계급을 경멸하도록 부채질하고, 자신의 ‘뿌리’에 대한 그러한 경멸로 인해 그들의 자긍심(self-respect)은 회복되기 힘든 상처를 입었을 것이다. 정규교육을 통해 하층에서 올라온 자들의 이러한 자기 출신계급에 대한 경멸은 바로, 지배계층의 세계관에 지배된 당대의 교육체계가 효과적으로 자신의 이데올로기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³⁾

그러나 정규교육체제의 그러한 이데올로기적 기능은 어떤 사상의 주입에 앞서 소위 ‘표준어’의 훈련을 통해 더욱 은밀하고 더욱 효과적으로 수행된다. 일반적으로 ‘표준어’는 이데올로기적 중립지대가 아닐 뿐아니라 그 자체로서 사회계급을 가르는 하나의 중요한 징표일 수 있는데, 각 사회계급이 자신의 문화적 정체성을 타계급의 것과 뚜렷이 구별하는 사회일수록 그러한 경향은 강화된다. Dickens 당대의 영국은 그런 사회 가운데 하나였다. 사실 그 사회(society)는 언어적 ‘표준’과 ‘사회’(Society)와 상류층이 하나인 그런 곳이었다. 그 ‘사회’의 대표적 일원이며 거부이자 정치권의 거물인 Podsnap은 하층계급에서 흔히 발견되는, 표준어법으로부터의 일탈 현상에 심한 경멸을 드러낸다. 그는 ‘horse’를 ‘orse’로 발음하는 어느 외국신사에게 이렇게 말한다.

‘In England, Angleterre, England, We Aspire the ‘H.’ and We Say ‘Horse.’ Only our Lower Classes Say ‘Orse!’ (179)

따라서 그가 그토록 자부심을 가지고 언급하는 ‘영국인’(Englishmen)에 하층계급은 결코 끼지 못한다. 다시말해 언어적 ‘표준’에서 일탈한 하층민들은 ‘영국인’의 ‘표준’에 미달한다. 그런데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이 언어적 ‘표준’을 익히는 데는 돈이 든다는 점이다. 또 ‘표준’을 익혀야 비교적 쉽게 돈을 벌 수 있다. ‘표준어’는 상품이자(Silas Wegg와 Boffin의 관계를 보라)⁴⁾ 자본이다(Lammle 부부의 화술이 하는 역할을 보라). 그러므로 하층계급 출신으로서 정규교육과정을 통해 ‘표준어’를 익힌 자는 문화적 정체성에 있어 그리고 동시에 사회경제적 지위에 있어 이미 자신의 출신계급을 벗어날 요건을 갖춘 셈이다.

반면 이 ‘표준어’를 배울 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당한 하층민들의 언어적 감수성에는, 그들의 언어를 그저 ‘일탈’이나 ‘타락’으로 규정하는 당대 지배층의 관념은 물론, 그것을 하층민 나름의 관용적 어법이라고 규정 ‘해주는’(?) 문화적 다원주의의 관념까지도 비판할 필요를 암시하는 어떤 적극적 측면이 있다. 예컨대 돈은 궁하지만 상류층의 세련된 화술에 통달한 Lammle 부부가 Boffin의 비서 자리 및 이전에 Bella가 차지했던 자리를 노리고 Boffin 부부를 찾아왔을 때의 장면(IV권 2장)을 보자. Boffin 부부는 갑자기 거부가 되었지만 그들의 언어감각은 여전히 하층민의 감수성에 더 가깝다. 그들과 마주앉은 Lammle 부부는 평소대로 온갖 수사적인 어구들을 동원해 ‘담소’의 분위기를 만들려고 애쓰지만, 정작 Boffin 부부는 시종일관 침묵을 지키고 있다. 이날따라 이 부부는 대화에 ‘엮이지’를 않는다. 그러나 Boffin은 갑자기 직설적이고 통명스런, 그러나 어떤 위엄을 지닌 어조로 대화에 끼어들어 그들의 ‘담소’의 판을 깨버리고, 수표 한장을 주어 그들을 돌려보낸다. 여기서 느껴지는 긴장은

3) Pam Morris에 따르면 당시의 ‘문명화된’ 지역 사람들은 (Gaffer 등의 빈민들이 모여 사는) 강변 지역이 어떤 새로운 형태의 삶의 원천이기는 커녕 전국민적 타락과 퇴행의 근원지가 되리라는 두려움을 지니고 있었다. 이들은 교육을, 빈민 노동계급을 ‘교화’하여 그들의 ‘야만성’을 없애는 진보의 주요한 수단으로 여겼다. 이러한 관념에 지배되는 정규교육 체계를 ‘성공적으로’ 거쳐나온 하층계급 출신이 자기의 과거 및 과거 이웃들을 어떠한 시각으로 보게 될 것인가는 충분히 짐작할 만하다. Morris, *Dickens's Class Consciousness: A Marginal View*(London: Macmillan, 1991) 121.

4) Connor는 Wegg가 문학언어를 시간당 그리고 권당 얼마 식으로 ‘홍정’해서 팔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는 점을 지적한다. Steven Connor, *Charles Dickens*(Oxford: Basil Blackwell, 1985) 150.

한 쪽의 청을 다른 쪽이 거절할 때 생기는 긴장이기도 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한 계층의 언어의 본질적 가식성과 공허함을 다른 계층의 언어적 관습이 직감적으로 감지하고 그것에 편입되기를 거부할 때 생겨난 긴장이기도 하다. Michael G. Miller는 상류층 사교그룹이 종종 회동하는 곳인 Veneering의 집이 “같은 인간들끼리 서로 염려해주기보다는 서로 이용해먹게 되어있는 증권거래소나 똑같다”(a veritable stock-exchange floor where one's fellow humans are to be used rather than cared for)고 말한바 있는데,⁵⁾ 실제로 상류층의 세련된 언변은 개인적 이득이라는 ‘증권’을 감싼 예쁜 봉투에 불과한 것이다. 문법적으로 틀리고 속생각을 듣기좋게 은근히 전달하는 데에 서툰 하층민들의 언어관습은, 이 소설에서 단지 ‘일탈’이나 여러개의 공존하는 문화들 가운데 하나인 것이 아니라, ‘표준’으로 통하는 상류층 언어의 ‘세련됨’의 가식성을 폭로하고 거부하는 힘을 지닌 것으로 그려진다. 그렇다고 Dickens가 하층민들의 언어를 무조건 이상적인 것으로 내세우는 것은 아니다. 가령 상류층의 ‘표준어’를 모방하는 데 그친 Silas Wegg의 언어, 사는 것이 하나의 집으로 화해버린 주정뱅이 Mr Wren의 언어 등은 ‘순수’하거나 ‘창조적인’ 것과는 거리가 멀다.

Charley가 비록 빈민학교일지라도 정규교육과정을 거쳐 중상층에 진입하는 극소수 하층민의 한 전형으로 그려졌다면, 대부분의 하층민들은 마음씨좋은 중상류층의 도움으로 틈틈이 학습을 받거나, 혼자서 고생 끝에 문자를 깨우치거나, 아니면 아예 교육에의 열망을 일찌감치 버리는 것으로 나온다. 생계를 잇는데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Eugene의 후원으로 유태인 Riah에게서 학습을 받는 Lizzie와 Jenny의 모습을 통해, Dickens는 하층민들의 교육에의 열망 및 그들을 위한 교육재정을 확보할 필요성을 보여줌과 아울러, 하층민의 가난과 무지를 나타와 연관시키는 지배이데올로기를 공박한다. Riah는 Jenny에 이어 Lizzie를 자기의 상전인 고리대금업자 Fledgeby에게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한다.

‘Her friend, and as industrious as virtuous. But that they both are. They are busy early and late, sir, early and late; and in bye-times, as on this holiday, they go to book-learning.’ (332-33)

‘busy early and late’ — Riah가 이 말을 특히 강조하면서 Fledgeby를 비꼬고 있다는 인상은 받을 수 없지만(그의 성품은 남을 비꼬아 말하는 것과 어울리지 않는다), 우리는 여기서 일과 학습을 어렵게 병행하는 Lizzie와 Jenny의 삶을, 악랄한 고리대금업자인데다가 그 실무마저 Riah에게 맡기고 자신은 대부분의 시간을 빈둥거리며 보내는 Fledgeby의 삶에 대조시키는 가운데 그 하층 노동계급의 삶의 가치를 부각시키려는 Dickens의 의도를 읽을 수 있다. 일과 학습의 병행은 Boffin과 Rokesmith의 도움으로 Bradley에게서 야간학습을 받는 Sloppy나, 자신과 여러 아이의 생계를 책임지면서 어렵사리 독학으로 문자를 깨우쳤을 Betty의 경우도 마찬가지다.⁶⁾

5) Michael G. Miller, “The Fellowship-Porters and the Veneerings’: Setting, Structure and Justice in *Our Mutual Friend*,” *The Dickensian* 85.1(1989): 32.

6) 소설에서 Betty가 혼자서 문자를 깨우치는 모습은 묘사되지 않는다. 그러나 “letter-writing — indeed, writing of most sorts — hadn’t much come up for such as me when I was young”(442)이라는 그녀의 말로 미루어 볼 때 그녀가 학교에 다니지 못했음은 물론 비정규적인 별 다른 지도도 받은 적이 없음이 거의 확실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성경과 신문 등 문자를 읽

그러나 교육문제와 관련하여 Dickens가 문제삼는 지배이데올로기는 가난과 무지가 나태로 부터 온다는 관념만이 아니다. 이 소설에서 그에 못지 않게 강하게 반박되는 것은 정규교육을 받지 못한 대부분의 하층민들은 도덕적 관념이 희박하고 감수성이 조야하다는 지배층의 시각이다. 그 반박의 가장 대표적인 예는 역시 Lizzie의 형상이라고 하겠는데, 공동체의 윤리에 기반한 그녀의 선명한 도덕의식 및 이것과 멀 수 없는 관계에 있는 예민한 감수성은 개인주의에 흠뻑 젖은 Eugene이나 Bella 같은 '세련된' 의식의 소유자들까지도 감동시키고 그들을 변화시키는 힘을 지닌 것으로 제시된다.⁷⁾ 물론 하층민 가운데는 Roger Riderhood와 같은 비열한 성품의 소유자도 얼마든지 있겠으나, 이것도 정규교육을 받지 못한 탓이라기보다는 타고난 면과 함께 삶의 조건이 크게 작용한 결과로 비쳐진다. 제대로 배우지 못한 하층민들의 도덕의식은 상류 식자층의 교과서적 윤리를 실천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자본주의적 윤리로서의 그것의 이기적 본질을 째뚫어보고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힘을 지닌 것으로 제시되는 테. 그러한 힘으로서 그것은 시대극복 혹은 체제극복의 의미까지 띠게 된다. 이 점은 하층민들의 노동과 사랑이 그려지는 가운데 뚜렷해진다.

3.

Dickens가 그리는 하층민들의 세계는 결코 그 자체로서 이상적인 곳은 아니다. 거기에는 가난과 비참한 노동환경, 범죄 뿐아니라 하층민 나름의 다양한 편견들도 있다. 가령 Gaffer는 자식의 교육을 무조건 반대하는 점에서뿐아니라, 자신의 'robbery of a dead man' (강에서 건져올린 시신에 딸린 물건을 훔치는 것)을 Roger의 'robbery of a live man'과 뚜렷이 구별하면서 그를 범죄자로 경멸하고 자신의 행위는 합리화하는 대목(46-47)에서도 편견을 드러낸다.

그러나 이러한 종류의 편견은 'robbery of a dead man'이 정말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보다는 왜 Gaffer가 그러한 편견을 지니게 되었는가 하는 문제를 제기한다. 즉 Dickens가 그리는 하층민의 의식의 문제점들은 독자들에게 윤리학적 논쟁이 아니라 사회학적 논쟁을 요구하는 것이다. 말을 달리 하면, 그는 그러한 문제를 개인의 사고력이나 결단이 아니라 삶의 환경과 연관시켜 생각해볼 것을 요구한다. 물론 구조와 주체에 관한 그 해석

을 수 있는 것은 그녀의 그 탁월한 의지력으로 일하는 투톱이 글을 깨우친 덕일 것으로 여겨진다. Cotsell의 지적처럼 이러한 경로로 그녀는 자기의 역경이 자기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사회 전반의 문제임을 알게 되었던 것이다. Michael Cotsell, "Do I Never Read in the newspapers": Dickens's Last Attack on the Poor Law," *Dickens Studies Newsletter* 14.3(1983): 81.

7) 몇몇 비평가들은 Lizzie의 형상이 오히려 너무 완벽한 느낌을 주어서 하층민의 전형이 되기에 부적합하다는 문제를 제기한다. 가령 Graham Smith는 Lizzie의 도덕의식이 Thames강가에서 강물 속의 시체를 건져올리는 것을 업으로 하여 살아가는 빈민의 딸로서는 지나치게 발달해 있다고 말한다. (*Dickens, Money, and Society*, Berkeley: U of California Press, 1968, 188). 그러나 그런 빈민의 딸은 결코 Lizzie 정도의 발달된 도덕의식을 지닐 수 없다는 생각이야말로 Dickens가 의도적으로 문제삼으려 했던 바로 그 지배이데올로기의 일부이다. Lizzie의 형상이 여성 일반에 대한 Dickens의 이상을 반영한 것은 사실이나 그가 하층 빈민의 딸을 선명한 도덕의식을 지닌 인물로 그린 것은 오히려 그가 자신의 창작의 기초를 지배층의 관념에 두지 않고 자신의 방대한 조사작업 및 하층민들과의 접촉, 그리고 현실비판 정신에 두었음을 증명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은 논쟁에서 보듯이, 한 개인의 혹은 집단의 그릇된 의식을 설명함에 있어 ‘환경’을 지나치게 강조한다면 그 개인이나 집단의 주체성 혹은 책임성을 제대로 부각시키지 못하는 수가 있다. 그러나 Dickens 당대에 하층민의 의식에 기친 물질적 환경의 영향이란 의심할 바 없이 막대한 것이었고, 환경의 개선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곳에서 의식의 변화만을 요구하는 것은 환경 개선을 위한 비용을 부담하기를 꺼리는,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는 중상층의 논리와 맞닿아 있는 것이었다. Dickens는 이 소설의 여러 곳에서 생활환경이 사람들의 성격과 세계관에 준 영향을 강조한다. Gaffer가 Lizzie에게 말하듯 그들의 ‘meat and drink’인 Thames 강물은 ‘the filthy water’로 묘사된다(44-45). Jenny의 독설과 자기 아버지와의 전도된 관계 역시 그녀가 자라온 생활환경에 연유하는 것으로 암시된다. 작가는 그녀를 이렇게 묘사한다.

Poor doll's dressmaker! How often so dragged down by hands that should have raised her up: how often so misdirected when losing her way on the eternal road, and asking guidance! Poor, poor little doll's dressmaker!(294)

마찬가지로 그는 Pleasant Riderhood의 사악한 행실이 결코 그 자체로 용납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행실의 궁극적 원인은 그녀의 삶의 환경에서 찾아야 한다고 보고 있다.

As some dogs have it in the blood, or are trained, to worry certain creatures to a certain point, so ... Pleasant Riderhood had it in the blood, or had been trained, to regard seamen, within certain limits, as her prey Yet, all things considered, she was not of an evil mind or an unkindly disposition. For, observe how many things were to be considered according to her own unfortunate experience.(406)

Bella의 배금주의적 의식도 돈의 힘이 그녀의 삶을 통채로 흔들어놓은 결과로 그려지며, Boffin 부부 및 Rokesmith와의 새로운 생활환경 속에서 그녀의 원래의 선한 성품이 다시 빛을 발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Dickens가 하층민을 환경에 따라 이렇게 저렇게 될 수 있는 역사의 ‘객체’로만 그린 것은 물론 아니다. 그가 구호대상 극빈자들의 거지근성⁸⁾을 가차없이 비판하고 일하는 자들의 독립의식과 상호부조의 정신을 높이 사준 것은 하층민을 자기 삶의 주체로, 나아가 미래 사회의 주체로 묘사하는 데 따른, 그들의 상이한 자질들의 ‘선별작업’이라고 보아야 한다. 하층민의 입장에서 보면 그러한 자질들의 선별은 곧 역사의 객체로서 형성된 자신의 즉자적 모습을 지양하고 미래의 공동의 삶의 한 주체로 스스로를 정립함을 의미한다.

구호빈민의 문제는 당대에 가장 큰 사회적 쟁점의 하나였다.⁹⁾ 당시 기아로 죽어간 사람들 중 상당수는 구호빈민들이었는데, Dickens는 한편으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던 당시의 구빈법(the Poor Law)을 비판하면서 동시에 상습적인 구호빈민들의 삶의 자세를 비판한다.

8) 구호에만 의존해 생계를 잇는 극빈자를 가리켜 ‘pauper’라고 하는데, Dickens는 이 소설에서 그들의 거지근성 또는 거지와 같은 삶의 방식을 ‘pauperism’이라고 부르면서, 가난하지만 일할 수 있는 만큼 일해서 살아가는 자들의 삶으로부터 ‘pauperism’을 엄격히 구별한다. 이후 이 글에서 ‘구호빈민’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이 ‘pauper’들이다.

9) Michael Cotsell은 앞서 언급한 글에서, 당시 발간된 *Times*와 *Punch* 등에 실린, 구호빈민과 구빈법 개정운동에 관한 생생한 기사들 및 드자편지들을 인용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Dickens가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근본적으로 문제삼는 것은 빈민의 구제에 아예 무관심한 상류층 부자들의 태도이다. 소설 제1권의 'Podsnappery'라는 장에는 상류층 인물들이 모인 Podsnap의 파티에서 'a meek man' 이¹⁰⁾ 길거리에서 최근 기아로 죽어간 사람들에 관해 주책없이(?) 말을 꺼내는 장면이 있다. 화려한 파티장소에 어울리지 않는 이 이야기를 심히 불쾌하게 받아들인 Podsnap과 그 'meek man'이 이어가는 이후의 대화에서, 흥미롭게도 전자의 말은 시종 직접화법으로, 후자의 말은 간접화법 또는 자유간접화법으로 전달된다. 이는 상류층 사람들 사이에서 '권위있는 말' 또는 '지배적인 의견'으로 통하는 것은 분명 Podsnap의 말이며 'the meek man'의 말은 '소수의견.' 혹은 심지어 하나의 '풍문'에 불과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상황에 대한 형식적 알레고리가 아닌가 생각된다. 타자의 말을 거르지 않고 직접 전한다는 인상을 주는 직접화법은 그 화자를 살아있는 하나의 개성적 인격체로 느끼게 한다. 반면 간접화법은 화자를 하나의 인격체에서 하나의 목소리 혹은 의견으로 축소하는 경향이 있다. 따옴표 속의 공간은 철저히 화자의 왕국이다. 따옴표가 없는 간접화법의 공간은 작가의 목소리 혹은 의견과 은근히 겹치거나 병존한다. 직접화법에서 독자는 화자와 직접 대면하지만 간접화법에서는 작가를 거쳐 또는 작가와 함께 삼각적으로 그와 대면한다. 자유간접화법은 화자의 개성적 존재를 간접화법의 경우보다는 좀더 많이, 직접화법의 경우보다는 좀 덜하게 노출시킨다. 직접화법으로 전달되는 Podsnap의 말을 들으며 우리는 그의 모습을 '보고' 있는 듯이 느끼는데, 'the meek man'의 말을 '건네' 들으면서는 좀처럼 그렇게 느끼지 않는다. 그는 보이지 않는 목소리와 같다. 물론 Volosinov/Bakhtin의 대화론(dialogism)이 시사하듯, 직접화법에도 작가의 '의도'가 묻어 있고, 간접화법에는 물론, 작가가 직접 나서서 하는 말에까지도 작가 아닌 타자의 목소리가 관여할 수 있다고 볼 때, 직접화법의 직접성, 개성성과 간접화법의 매개성, 추상성을 대립시키는 것은 소설적 인물을 '보거나' '듣는다'고 말하는 것 자체와 마찬가지로 착각에 근거한 것이다. 그러나 작가는 바로 이 착각의 효과를 통해 자기 의도를 관철한다. 주위의 청중의 절대적 지지를 받는 자신만만한 Podsnap의 말이 직접화법으로, 지지 여부가 불투명하여 상대적으로 조심스러운 'the meek man'의 말이 (자유)간접화법으로 전달되는 구조는 그들의 그 자신만만함과 조심스러움을 효과적으로 강조하면서 그들과 청중의 관계의 본질을 적절히 상징하고 있다. 상류층 부자들로 구성된 청중은 Podsnap을 보고 믿고 그 강렬한 (계급적) 개성에 매료되지만, 그들이 인정하기를 꺼리는 사실을 언급하는 'the meek man'에 대해서는 마치 풍문을 전하는 사람을 대하듯 수상쩍은 눈길을 보내고 그의 개성적 존재를 무시한다. 독자는 소설 내 청중의 그러한 태도와 두 화자의 화법 사이에서 어떤 형식적 유사성을 느낀다.

그러나 이는 여기서 의도되고 실현되는 효과의 한 측면일 뿐이다. Podsnap이 하는 말, 그가 쓰는 단어들 — 가령 "But I see what you are driving at Centralization. No. Never with my consent. Not English."(187) 혹은, "And you know: at least I hope you know: that Providence has declared that you shall have the poor

10) 여기에 등장하는 'the meek man'은 성경의 'Blessed are the meek, for they will inherit the earth' (Matthew 5:5)라는 구절을 떠올리게 한다. 그러나 작가는 이 사람의 개성이나 정체를 별로 중요시하지 않는 듯하다. 이 장면의 핵심은 그의 입을 통해 간접적으로 전해진 하층민의 실상 및 이 문제를 둘러싼 그의 온건한 비판적 입장 — Dickens의 입장보다는 온건하고 막연하지만 그의 생각을 일정정도 반영하는 — 이 상류층에 과연 어떤 반응을 일으키는가 하는 점이다.

always with you?"(188) — 은 당시 상층 부자들이 빈민과 구빈법에 관해 가지고 있던 일 반적인 생각을 극단적으로 표현한 것인데, 여기서 직접화법은 상류층의 이기적인 편견들을 하나의 인격으로 집중시키는 데에 효과적으로 쓰여서 상류층의 그 일반적인 생각에 대한 독자의 거리두기를 더욱 촉진하고 있다. 직접화법의 생생함은 아이러니컬하게 그 화자의 우스꽝스러움을 증폭시키는 요인이 된다. 결국 Podsnap의 말을 전하는 직접화법은, 소설 내 그의 청중 — 물론 독자가 상상하는 청중 — 에 대해서는 그의 권위를 높이는 효과를, 소설 밖 독자들에게 대해서는 그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효과를 내게 되며, 반대로 'the meek man'의 말을 담아내는 (자유)간접화법은 그 말이 Podsnap과 그의 상류층 동조자들 가운데에서는 배척당하는 소수의견이지만 그들 집단 바깥의 시각에서 보면 오히려 정당하고 보편적인 의견이라는 인상을 준다. (자유)간접화법에 의한 그의 말은 어느 지점에서는 작가 자신의 말과 은연중 일치하게 된다.

구빈법에 관한 상류층의 시각을 살피려면, 우리는 Podsnap의 말 가운데 특히 'centralization'이라는 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는 'the meek man'의 생각이 결국 'centralization'으로 귀결된다고 말함으로써 그를 다른 상류층 사람들로부터 확실히 고립시키는 데 성공한다. Cotsell¹¹⁾에 따르면, 여기서 이 말은 생산의 중앙집중화가 아니라 빈민들, 특히 구호빈민들의 구제비용 지출의 중앙집중화를 뜻한다. 다시 말해 그것은 London의 전 구역에 걸쳐 빈민구제비를 균등하게 할당하고 지출을 중앙에서 감독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는 빈민들이 나가서 일은 하지만 거주하지는 않는 부자구역이 빈민구역과 똑같이 돈을 내서 빈민을 구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부자구역의 부가 결국은 빈민들의 노동에 의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자들은 그들의 구제는 그들이 사는 곳 — 당연히 가장 돈이 없고 가장 돈이 필요로 되는 곳 — 의 지방관청에서 알아서 할 일이라는 태도를 취했던 것이고, *부자들에게 있어 'centralization'은 (마치 우리 사회에서 '공산당'이 의미하는 바처럼) 부정적이고 공포스런 이미지를 띠었던 것이다.

그러나 앞서 말했듯이 그러한 상류층에 대한 Dickens의 비판이 하층민 가운데 구호에 전적으로 의지해 살아가는 자들에 대한 동정으로 이어진 것은 아니다. 그러한 삶의 태도에 대한 가치없는 비판은 여러 각도에서 이루어진다. 우선, Boffin이 갑자기 거부가 되었음이 세상에 알려지자 그에게 자선을 요구하는 개인과 단체들이 줄을 잇는데, 작가는 이들을 다양한 수식어를 붙여서 '거지들'로 묘사한다(I권 17장). Riderhood, Wegg, 그리고 Mr Wren의 부정적 형상은 남의 노동이나 부에 빌붙어 사는 인생을 작가가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여실히 드러낸다. 게다가 역경 속에서 "한번도 자선을 받아본 일이 없는"(441) Betty의 삶은, 비록 그녀의 외골수가 Johnny를 제때 병원에 보내지 않음으로써 그를 죽음에까지 이르게 했다 해도 (여기서도 그녀가 그 죽음에 궁극적 책임이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빌붙어 사는 태도를 환경 탓으로 돌려 합리화할 여지를 없애는 것이다.

반면 Lizzie와 Betty를 비롯하여 Jenny, Boffin 부부, John Harmon(Rokesmith),

11) 위에 언급한 글에서 Cotsell은 Dickens 당대의 *Times*에 실린 한 논설을 소개하는데, 그것은 "이 대도시[London]의 부와, 조직(organization)과 … 선한 의도만 있으면 도시 인구 전체에 더 따스한 집과 더 따뜻한 옷과 더 나은 화로와 더 나은 음식을 공급하기에 충분하다"고 말하고 있다. 여기서 Cotsell은 '조직'이라는 말에 주목하면서, 당시의 문제의 핵심은 Podsnap이 즉각 눈치채는 것처럼 'centralization'이었다고 말한다. Cotsell 83.

Mr Wilfer, Sloppy, 그리고 Betty에게 도움을 아끼지 않은 시장사람들 등등 열심히 일하며 경제적 독립을 이루는 사람들은 매우 호의적으로 그려진다. (이들 가운데 Bella도 속한다고 하겠는데, 그녀의 ‘좋은 성품’이 그것을 가지고 있던 배금적 사고를 마침내 깨고 빛을 발하는 것과 동시에 그녀는 점차 일에 취미를 붙이는 것으로 그려진다). 이들은 Riderhood 같은 하층민이나 Eugene 같은 상층 유한계급과 달리 근면할 뿐아니라 동정심과 상호부조의 미덕을 지닌 것으로 나온다. 그런데 Dickens가 그리는 일과 미덕의 관계를 반드시 원인과 결과의 관계로 볼 수는 없다. 예컨대 John의 아버지 Harmon의 경우 일은 누구못지 않게 열심히 하지만 어떤 적극적 미덕을 보여주지는 않는다. 작가의 관점은 아무래도, 일이 좋은 성품을 만든다기보다는 이미 형성된 좋은 성품이 일을 원하게 한다는 생각에 가까운 듯하다. 그러므로 일이 좋은 성품의 ‘징표’는 될 수 있지만 그 원인이라고 볼 수는 없다. 좋은 성품은 원래 타고났거나 빈곤한 삶이 주는 광범위한 경험들 속에서 형성된 것이다. (그러나 이 경험들은 또한 악한 성품을 형성하기도 한다).

그러나 ‘좋은 성품’에 대한 관계만으로 이 소설에서 일하는 삶이 의미하는 바를 모두 설명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가령 Lizzie가 Eugene의 생명을 구하는 장면에서는 그녀가 과거에 강물 위에서 일하면서 쌓은 기술과 체력의 효과를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A sure touch of her old practised hand, a sure step of her old practised foot, a sure light balance of her body, and she was in the boat. A quick glance of her practised eye showed her, even through the deep dark shadow, the sculls in a rack against the red-brick garden-wall. Another moment, and she had cast off (taking the line with her), and the boat had shot out into the moonlight, and she was rowing down the stream as never other woman rowed on English water. (768)

비록 Lizzie의 의식에 뿐아니라 이 장면 전체에 다분히 ‘신의 섭리’에 대한 느낌이 깔려 있다 해도, 작가가 강조하는 바는 그보다도 노동계급 여성에게 발견되는 숙련된 기술, 힘, 담력의 실제적 가치와, 남을 돋는 데 있어서의 자발성과 사심없음의 미덕이다. 힘과 기술을 갖춘 여성은 하나의 조소거리가 아니라 이상적 인물로 제시하는 것은 Victoria조의 이상적 여성상인 ‘lady’의 비육체적인 활동과 비실제적인 의식에 대한 비판이기도 하다.¹²⁾ 한편 비평가 Darby는 Eugene를 구하는 Lizzie의 모습에서 또다른 의미를 발견한다. 그녀는 아버지에게서 전수한 기술을 가지고 아버지처럼 견뎌올린 시신의 물건이나 훔치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육체를 살려내는데, 이로써 Lizzie는 아버지의 죄값을 치루며, 아버지가 하던 일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한다는 것이다.¹³⁾ 이러한 시각은 Dickens가 그리는 일군의 하층민들이 자기의 삶을 ‘살아내기’에 그치지 않고 타인의 삶, 나아가 사회 전체의 공동체적 숨결을 ‘살려내기’로

12) ‘lady’ 관념에 대한 비판은 Mrs Boffin의 묘사에서도 이루어진다. 그녀가 Betty에게, “Bless ye, I wasn’t born a lady any more than you”라고 말하자 Betty는 “It seems to me that you were born a lady, and a true one, or there never was a lady born”이라고 대답한다(252). ‘lady’가 되는 것은 이 시대에 혈통의 문제라기보다 돈의 문제였다. 여기서 Dickens는 돈의 가치를 선량한 심성의 가치로 바꾸기를 시도하는데, 이 가치는 중상류층에서보다 하층에서 더 많이 발견된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다.

13) Margaret Flanders Darby, “Four Women in Our Mutual Friend,” *The Dickensian* 83.1 (1987): 31.

나아간다고 보는 이 글의 입장과 통한다.

그런데 일하는 삶과 빌붙어 사는 삶을 이렇게 대립시키는 것에 불만을 가진 평자들도 없지 않다. Cotsell은 Dickens가 근면한 Betty와 '직업적' 구호빈민을 절대적으로 대립시킴으로써, 구빈법을 악법으로 변질시킨 어떤 원칙, 즉 '구제할 가치가 있는 자'와 '가치가 없는 자'의 구별을 그대로 재생했다고 말한다.¹⁴⁾ 또 Brown은 Lizzie나 Betty의 형상이 '훌륭한 노동자'에 대한 중산층의 이상을 반영한다고 주장한다.¹⁵⁾ 이들의 말대로 '가난 그 자체'의 문제 — 나아가 가난을 만들어 내는 사회구조의 문제 — 를 도외시하고 열심히 일하는 자와 일하지 않는 자의 구분에만 매달린다는 것은 분명 중산층의 이데올로기의 불과하다. 그러나 가난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른 세상으로 보낸 Lizzie나 Betty의 삶의 묘사가 일하는 삶의 미덕을 드러내는 데 치우쳐 '가난 그 자체'의 문제를 가려버렸다고는 생각되지 않으며, 하층민들 내부의 바람직한 자질과 그렇지 못한 자질을 구별하면서 전자를 자본주의 사회의 지배적 문화에 대립시키는 Dickens의 '자질선별' 작업을 중산층의 이데올로기라 공격한다면, 이는 모든 것은 환경 탓이고 하층민에게 필요한 것은 오로지 자선과 계도 뿐이라는 또 다른 중산층의 이데올로기애 오히려 감염된 논리가 아닌가 하는 의심이 절다.

물론 긍정적 자질을 갖춘 하층민들 가운데 '살아내기'에 성공한 이들 — Bella, Lizzie, Boffin 부부 등 — 이 한결같이 재물의 획득이나 결혼을 통한 사회적 지위의 상승으로 자신의 미덕에 대한 보상을 받는다는 사실은 다른 차원의 문제를 제기한다. 작가는 Veneering이나 Lammle 부부로 대표되는 '돈의 문화'에 대립되는 하층민의 자질들이 그들의 운명이 바뀐 이후에도 바뀌지 않고 사회를 변화시키는 힘이 될 것이라고 믿고 있는가? 그에게 있어 역사적인 것 — 혹은 계급적인 것 — 과 자연적인 것의 관계는 어떠한가? Eugene을 구해낸 후 그와 결혼하여 계층상승을 이루는 Lizzie의 경우를 중심으로 이 문제를 살펴보자.

4.

늙은 Harmon이 노동을 통해, Charley가 정규교육과정을 밟아 사회 밀바닥을 벗어나는 길을 택했다면, Bella는 하층계급의 남성들에 비해 부를 쌓거나 정규교육을 받을 기회가 더욱 더 적은 하층계급 여성으로서 결혼을 통해 가난을 벗어나는 길을 희구한다. "돈을 줘려면 돈과 결혼하는 수밖에 없어!(to get money I must marry money)"(375)라는 그녀의 말은 Dickens 당대의 수많은 하층(및 중산층) 여성들의 일반적 희망과 현실의식을 압축적으로 표현한다.

그러나 작가는, 똑같이 '돈과 결혼' 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Bella와 Sophronia를 각기 다른 시각으로 조명한다. Bella의 경우 그녀의 거주 구역의 묘사 — 'tiles and bricks were burnt, bones were boiled, carpets were beat, rubbish was shot, dogs were fought, and dust was heaped by contractors'(76) — 에서 보듯 작가는 그녀를 배금적 사고로 이끈 생활여건을 충분히 암시함으로써, 독자로 하여금 그 사고 자체를 옹호하진 않으

14) Cotsell 89. Cotsell은 'fundamental evil'이라 할 가난 그 자체를 없애려면 Dickens처럼 빈민을 두 종류로 구별하는 대신 최소한의 사회보장을 원칙으로 삼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15) James M. Brown, *Dickens: Novelist in the Market-Place*(London: Macmillan, 1982), 157.

면서도 그녀의 삶에 동정을 지니도록 배려하고 있으며, 나아가 그녀의 아버지에 대한 태도의 묘사에서 보듯 ‘혼인시장’에서 비싸게 팔리고자 하는 아무진 꿈 뒤에 아직 따뜻한 피가 그녀의 가슴 속으로 흐르고 있음을 보여주려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가난을 빼속깊이 맛보지 못한 Sophronia의 결혼관을 묘사하는 작가의 펜은 보다 날카롭다. 그녀가 자기와 똑같은 야심으로 배우자를 고른 Lammle과 결혼하게 된다는 스토리 자체에 이미 그녀류의 삶에 대한 작가의 조소가 배어 있다.

Lizzie에게도 돈많은 상류층여성이 되고 싶은 꿈이 없는 것은 아니다. Eugene과 결혼할 귀부인이 어떤 사람일지를 한번 상상해보라는 Jenny의 말에 그녀는 이렇게 답한다.

‘She is glad, glad, to be rich, that he may have the money. She is glad, glad, to be beautiful, that he may be proud of her. Her poor heart —’

‘Eh? Her poor heart?’ said Miss Wren.

‘Her heart — is given him, with all its love and truth. ... And she says, that lady rich and beautiful that I can never come near’ (405)

여기에 감정이입의 흔적은 확연하다. ‘lady’가 되어 Eugene과 결혼하고픈 욕망은 그러나 그녀의 현실인식이 용납할 수 없는 것이다. 자기를 ‘lady’로 상상해보는 것조차 그녀는 “My fancy is not able to get that far”(404)라는 말로 거부한다.

그런데 우리는 그녀가 상류층 신사와의 결혼을 불가능한 일로 보는 것이 단지 이러한 ‘현실 인식’ 때문만은 아니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그것은 또한 그녀의 깊은 도덕의식과 연관되어 있는데, 이 의식은 좁은 의미의 ‘도덕’을 넘어 초보적 단계의 계급의식의 일부를 이루고 있다. 왜냐하면 이 의식은 돈에 지배되는 계급사회가 그 주도적 계급계층에게 어떠한 의식과 감정을 부여하는가를 째뚫어보면서 그러한 의식과 감정에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Lizzie는 분명 운동권에서 쓰는 의미로 ‘계급의식화’ 된 여성은 아니지만, Raymond Williams가 말하는 ‘감정의 구조’(structures of feeling)가 지배계층과 자신의 계층 사이에 다르게 형성되어 있음을 직감적으로 그러나 뚜렷이 알고 있는, 나름대로 ‘예민한’ 여성이다. 그녀가 Eugene과 Bradley 양자의 청혼을 완강히 거절하는 데는 그러한 인식이 깔려 있다.

Bradley는 사회의 지배적 가치관에 따라 자기를 평가하는 데 익숙한 사람이다. 결혼문제에 있어서도 예외는 아닌데, 심지어 하층계급 여성에게 청혼을 하는 순간에조차 그는 자기와 같은 계층의 여성의 자기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가지고 자기의 값어치를 계산해 그녀에게 제시한다.

‘I ask you to believe that if I were to offer my home such as it is, my station such as it is, my affections such as they are, to any one of the best considered, and best qualified, and most distinguished, among the young women engaged in my calling, they would probably be accepted. Even readily accepted.’ (453)

이 말 자체는 틀린 말이 아닐 것이다. 그와 같은 직업을 지닌 ‘빼어난’ 여자 — 아마도 여기서 그는 자기를 흡모하는 Miss Peecher를 염두에 두고 있으리라 — 의 가치관이란 아마도 그의 가치관, 다시말해 교육을 통해 전수되는 사회 지배계층의 가치관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 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지배계층의 가치관을 자기와 남에게 평가기준으로 들이대고 남이 자기

를 존경해주는 것을 통해 자긍심의 결핍을 보상하는 그에게는 애초부터 타인과의 진정한 관계를 맺는 길이 막혀있다. 왜냐하면 그는 지배적 가치기준에 따라 자기를 항상 남과 비교하면서, 자기보다 사회적 지위가 높은 Eugene 같은 사람에 대한 열등감과 자기보다 그것이 낮은 Lizzie 같은 사람에 대한 우월감 사이에서 동요할 것이기 때문이다. 사회적 지위에 있어 분명 자기의 아래인 Lizzie가 자기의 '가치'를 인정해주지 않을 때 그가 느끼는 분노와 당혹감은 이러한 관점에서 이해할 만하다.

'... I am only stating the case. I had to wrestle with my self-respect when I submitted to be drawn to you in spite of Mr Wrayburn. You may imagine how low my self-respect lies now.' (458)

여기에 암시되는 바처럼 Bradley의 고통은 Lizzie에 대한 우월감이 상처를 입었을 뿐 아니라 Eugene에 대해 느끼는 열등감이 Lizzie가 그에게로 기울어감에 따라 더욱 커진 데에 기인한다. 여기서 Lizzie 자신은 Bradley의 고통이 그녀에 대한 우월감에 기초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굴욕감을 느낀다.

계급적 편견으로 가득차 있으나 나름대로 진지한 Bradley의 사랑에 비해, Eugene의 태도는 적어도 겉으로는 덜 진지한 것처럼 보인다.¹⁶⁾ 어떠한 일에도 진지하게 몰두하지도 끝까지 책임을 지지도 않는 그의 성격은 개인적 성벽임을 넘어 하나의 계급적 특성이라는 인상을 주는데, 이런 특성이 Lizzie와의 관계에서도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나 Lizzie에 대한 그의 모호한 태도가 평소의 그의 무책임한 태도의 연장이라고만 볼 수는 없다. 분명 그러한 면도 있으나, 그것은 다른 한편으로, 자신의 바로 그 무책임성을 자각하고 넘어서려는 내적 암투의 표현이기도 한 것이다. 즉 그것은 상류층 신사와 하층 여성노동자와의 사랑이란 아예 '상식'에 어긋나므로 피해야 할 일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언제나 남자 쪽의 폐락과 여자 쪽의 '신세망치기'로 끝난다는, 지극히 당연시되는 가정에 대한, 혹은 그러한 결과를 바라보는 자신의 욕망에 대한, 힘겨운 문제제기를 담고 있다. Mortimer와 그가 나누는 다음의 대화는 그 점을 희미하게나마 암시한다.

'And yet, Eugene, you know you do not really care for her.'

Eugene Wrayburn rose, and put his hands in his pockets After a prolonged pause, he replied: 'I don't know that. I must ask you not to say that, as if we took it for granted.'

'But if you do care for her, so much the more should you leave her to herself.'

Having again paused as before, Eugene said: 'I don't know that, either. But tell me. Did you ever see me take so much trouble about anything, as about this disappearance of hers? I ask, for information.' (599)

16) Darby는 Eugene의 Lizzie와 결혼할 마음을 굳히기 전까지 그가 그녀를 쫓아다닌 동기는 심히 불순한 것 — 하층계급 여성의 유혹에 폐락을 맛보고 내버리는 것 — 이었음이 틀림없다고 말한다. (Darby 32). 그의 우유부단한 태도에 그러한 동기가 한몫 했다는 점을 부인하기는 힘들 것이다. 그러나 결혼을 결심하기 전까지의 Eugene과 Lizzie의 사랑 시나리오를 그러한 동기로만 설명할 수는 없다.

Eugene이 Lizzie에게 교육을 받으라고 설득하는 장면(II권 2장)에서도 그의 모습은 의외로 성실하고 사려깊은 인상을 준다. 작가도 ‘generous and unselfish interest,’ ‘earnestness,’ ‘openness, trustfulness, unsuspecting generosity, in his words and manner’ (286-88) 등의 말로 그에게 호의를 표하고 있다. 이러한 면모를 Lizzie가 보지 못할 리 없다. 물론 그런 면이 드러난 것은 감화력이 있는 Lizzie의 착하고도강인한 심성이 Eugene의 굳어진 존재에 충격을 준 결과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그를 계속 거부한 데에는 이미 말했듯이 사회계급에 있어서의 두 사람의 엄연한 차이에 대한 인식 이상의 이유가 작용한다. Paper Mill 근처에서 그가 은근슬쩍 그녀의 허리에 팔을 두르는 것에 대해, 혹은 동료와 이웃의 시선을 받는 그녀의 입장에 아랑곳하지 않고 그녀의 일터 부근에서 그녀의 애인처럼 처신하는 것에 대해 항변하는 Lizzie의 모습은, 중상류층 여성의 소위 ‘품행’에 대한 과잉의식이나 교태를 흉내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상류층 신사 Eugene의 의식에 대한 나름의 비판적 통찰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그가 그처럼 다소 함부로 행동하는 데에는 그의 고질적인 무책임성과 더불어서 사회적 신분에 있어서의 우월 의식이 깔려 있다는 인식이다. Lizzie가 Eugene을 나무라는 말을 들어보자.

‘... If you feel towards me, in one particular, as you might if I was a lady, give me the full claims of a lady upon your generous behaviour. I am removed from you and your family by being a working girl. How true a gentleman to be as considerate of me as if I was removed by being a Queen!’ (761)

여기서 Lizzie가 보는 Eugene은, 겉으로는 사랑의 이름으로 사회적 신분의 차이를 뛰어넘은 듯하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사회적 우월감을 지니고 있어서, 하층계급 여성 Lizzie가 상류층 신사인 자신의 ‘매력’을 거부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듯한 태도로 자신있게 행동하는 허위의식을 지닌 인간이다. 그러한 태도는 Bradley에게서도 보였는데, Bradley가 Lizzie와의 결혼을 처음부터 진지하게 고려했다면 Eugene은 (상대가 ‘lady’ 였을 경우와 달리) 결혼과는 일단 별개로 사랑을 한다는 점 — 이 점은 ‘자유연애’의 사상과는 아무 관련도 없는 것으로, 다만 그의 ‘불순한’ 동기에 대한 Mortimer의 의심을 뒷받침할 뿐이다 — 이 다를 뿐이다. Lizzie가 보기에 자기와 Eugene과의 사랑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은 그러므로 신분의 차이 그 자체라기보다 그 차이를 고스란히 사랑에 반영하는 Eugene의 의식이다. Lizzie는 잠시 후에 이 점을 보다 명확히 한다.

‘How can I think of you as being on equal terms with me? If my mind could put you on equal terms with me, you could not be yourself’ (763)

여기서 Lizzie가 Eugene에게 자기와 동등한 관계를 맺어줄 것을 요구하거나 기대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이 불가능함을 그녀는 잘 알고 있다. 다만 그녀는, 빠속 깊이 배어 있는 자신의 계급적 우월의식을 자각하지 못한 채 ‘사랑하는 데에 있어 신분의 차이를 접어두라’고 요구하는 그에게, ‘당신의 사랑 속에 이미 들어와 있는 신분의 모습을 보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그러나 Lizzie가 그의 계급적 한계를 지적하는 것과 그를 여전히 연모하는 것은 서로 모순되지 않는다. 속으로 그녀는 동요하고 있고, 그는 이 점을 충분히 확인한 후에 그녀와 헤어진

다. 강변을 걸으며 사색에 잠긴 그는 자기 감정이 진지한 것이라고 확신하면서도 “Out of the question to marry her, and out of the question to leave her. The crisis!” (766)라고 말하는데, 이는 이 순간의 그의 의식을 판단하는 데 있어 특히 주목해볼 만한 말이다. 분명 그는 여기서 하층계급 여성과의 사랑은 결혼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대다수 상류층 신사들의 의식을 여전히 공유하고 있지만, 다른한편 이 ‘별개임’이 그에게 속편한 일 이 아니라 ‘위기’로 느껴지고 있다는 점은 그의 사랑이 (대다수 신사들의 사랑과 달리) 자신의 유한계급적 존재방식을 위협할 정도로 깊은 것이라는 사실을 암시한다.

한편 앞서 언급한 Darby라는 평자는 Eugene의 위기에서 작가의 위기를 본다. Eugene의 ‘색욕’에 대한 Lizzie의 도덕적 영향력이 이 지점에서 일대 위기를 맞고 있고 이는 곧 그녀를 도덕적 힘의 화신으로 설정한 작가의 위기라는 것이다. 따라서 Lizzie가 Eugene을 구해내는 것은 곧 작가가 Lizzie를 구해내는 것이기도 한데, 왜냐하면 이 사건 이후 Eugene은 심성이 급속히 변화하면서 모든 활력을 잃고 Lizzie에게 육체적, 정신적 삶을 의존하게 되어 힘의 균형이 결국 그녀 편으로 기운다고 한다.¹⁷⁾ 이러한 논리는 Eugene의 사회적 지위상의 우위와 Lizzie의 도덕적 힘에서의 우위를 절대적으로 대립시켜 전자를 탐욕스런 신사로 후자를 흡수하는 천사로 표상하는 관점에서 있는데, 이는 이제까지의 우리 논의의 선상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시각이다. Eugene은 남에 대한 배려와 무관심, 깊은 사랑과 계급적 편견을 모두 보여주는 복합적 인물이고, Lizzie 역시 뛰어난 도덕적 자질 아래 나름의 계층상승에의 욕구를 누르고 있는 단순치만은 않은 인물이다. 위의 장면에서의 Eugene의 ‘위기’는 따라서 작가의 위기라기보다 그가 리얼리스트로서 이룬 하나의 성취를 표현한다.

작가의 진정한 위기는 Darby가 작가의 위기로부터의 구출이라고 본 바로 그 지점으로부터 시작된다. Eugene이 Lizzie의 힘으로 살아나면서 이야기는 급속도로 낭만적 종말을 향해 치닫는다. 이 종말은 이 소설 내의 다른 두 낭만적 플롯 — John Harmon과 Bella의 이상적 결혼과 부의 상속, 악한 Silas Wegg에 대한 Boffin의 ‘징계’ — 이 합쳐지는 지점이기도 하다. Eugene은, 죽을 뻔한 고비를 거쳐 다시 태어난 John처럼, 그리고 일부러 악하게 처신하는 Boffin이 의도한 ‘시험’을 거쳐 역시 자신의 선한 성품을 되찾은 Bella처럼, Bradley의 공격을 받은 후 강물에 빠졌다가 Lizzie의 도움으로 살아나서는 자신의 계급적 편견을 모두 버린 ‘거듭난’ 인물로 등장하는 것이다. Mortimer에게 “Don’t think of avenging me; think only of hushing the story and protecting her”(808)라고 부탁하는 그는 이제 자기 감정보다 Lizzie의 명예를 위주로 생각하는 보다 사려깊은 인물일 뿐아니라, 그녀 와의 결혼을 결심하고, 실제로 결혼한 이후에도 하층민 출신인 그녀가 말많은 상류층 사람들로부터 받을 곤욕에 대해 “목숨이 다할 때까지 그녀와 더불어 그리고 그녀를 위해 당당히 싸워낼 것(fight it out to the last gasp, with her and for her, here, in the open field)”(885)이라고 말하면서 상류층의 편견에 끝까지 맞서기로 작정하는 인물인 것이다. 물론 그의 그러한 싸움이 평탄한 것만은 아닐 것이라는 점을 작가는 소설의 마지막 장 “The Voice of Society”에서 암시하고 있다. (Eugene이 Lizzie를 생각할 때 그리고 Lizzie가 Eugene을 바라볼 때 ‘the voice of Society’ 가 그들에게 의식된다는 것은 글의 서두에 말한 사회적 ‘mutuality’를 보여주는 한 예라 할 수 있다). 그러나 ‘Society의 목소리’가 그

17) Darby 32-33.

들의 결혼생활에 영향을 준다면 그것은 무엇보다도 Eugene 자신의 의식을 통해서일텐데, 여기 보이는 Eugene은 예전의 부정적 모습이 모두 탈각되고 마치 자기 계급의 일반적 의식 바깥에서 그것에 대립해있는 사람처럼 묘사되고 있는 것이다. 이 부분에서 그의 형상은 아무래도 이전에 Lizzie와 아웅다웅할 때의 그 생생한 긴장을 잊고 낭만적 모티프에 지배당하고 있다는 느낌이 절다.¹⁸⁾

이 의심을 조금 더 밀고 나가서, 우리는 작가 Dickens의 인간과 역사에 대한 관념에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을 것이다. 작품의 말미에 보이는 Bella의 착한 심성이 원래 그녀가 지니고 있던 자질이 환경적 악조건을 극복하고 한껏 모습을 드러난 것에 불과한 것처럼, Eugene의 ‘변화’ 역시 이전에 간간이 보이던 그의 선한 인간성이 거기에 달라붙어 있던 계급적 편견을 (Lizzie의 영향으로) 떨쳐버린 결과가 아닐까? 그렇다면 그들의 ‘원래의’ 자질이란 어디서 생겨난 것일까?¹⁹⁾ Dickens에게 있어 인간성과 사회환경, 인간성과 계급성은 서로 완전히 대립하는 관계에 있는가? 사회의 변화란 이 ‘원래의’ 인간적 자질을 극대화하는 데 그 핵심이 있는 것일까? 그리하여 그 자질을 갖춘 사람은 계층상의 변화를 겪더라도 여전히 사회 전체를 개생시키는 원천이 될 수 있는 것일까? 돈과 사회적 지위로 자신의 선한 심성에 보상을 받는 Bella, Boffin 부부, John Harmon, Lizzie 등의 운명의 전환은 그들의 인간적 자질에 아무 영향도 끼치지 않는 것일까? 늙은 Harmon이나 Fledgeby의 손에서 악의 근원으로 작용했던 ‘돈’은 Boffin이나 John Harmon의 손에서 그 사회적 ‘본질’이 바뀌는 것일까?

이러한 질문을 하게 하는 요인이 소설 속에 상당히 존재함은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작가가 착한 심성을 비롯한 긍정적인 인간적 자질을 많은 경우에 왜 하필 하층민의 삶 속에서 발견했는가 하는 질문을 생략해서는 안된다. 또한 우리는 하층민들이 돈이나 더 높은 사회적 지위를 얻기 전에 돈이나 권력의 추한 모습을 충분히 보았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돈이나 권력은 그것이 없어서 곤란을 받는 사람들보다 그것을 손아귀에 쥔 사람들을 훨씬 더 추하게 만들기에 Dickens가 하층민들의 삶을 일반적으로 호의적인 태도로 묘사한 것은 그의 편견이라 할 수 없다. 또 하층민들이 어떤 미덕을 보여줄 수 있었던 것은 돈이나 권력이 없다는 소극적 이유 때문만이 아니라 — 그것은 그들 중에 발견되는 악한들이 왜 악한가에 대한 한 가지 이유이기도 하다 — 부자나 권리자의 추함을 몸으로 겪었고 동시에 하층민들간의 자발적인 유대를 체험했다는 적극적 이유 때문이기도 하기에, 그들이 가난을 벗은 후에도 그러한 미덕을 여전히 지닐 수 있는 것을 반드시 작가의 초역사적 인간관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아서는 안된다. 다시 말해, 비록 Dickens가 개인의 인간적 자질을 어느정도 주어진 것으로 간주했다 하더라도 그가 그것을 그 개인의 사회적 경험의 영향에서 독립된 어떤 추상적인 것으로 설정한 것은 결코 아니라는 말이다. 아울러 인간적인 것과 역사적인 것은 각각의 중심을 가지고 변화하면서 서로 변증법적 관계 속에서 영향을 주는 것이지, 전자가 후자에 완전히 종

18) Cotsell도 Eugene의 “싸움”에 대해 회의적이다. 이 평자는 그의 싸움이 실제로는, 사멸해가는 옛 신사계급의 대표격인 Twemlow가 마지막 장에서 Lizzie를 ‘lady’라고 부름으로써 돈과 권리의 화신인 Podsnap을 ‘한방 먹이는’ 그러한 방식으로, 부르조아계급의 속물근성에 가끔씩 불협화음을 내는 정도에 그칠 것이라고 주장한다(Cotsell 89).

19) 인간의 본성에 대한 Dickens의 생각과 관련하여 J. Hillis Miller는, “Dickens는 사람들 각자가 고정된 본성을 지니고 있다는 느낌에 끝까지 충실히다”고 주장하면서 Boffin, Riderhood, Bella, Eugene 등을 예로 들고 있다. Miller, “Our Mutual Friend,” Dickens, Ed. Martin Price (Englewood Cliffs: Prentice-Hall, 1967) 177.

속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겠다.

물론 이 말로 이 소설의 말미에 드러난 Dickens의 동요 — 리얼리즘적 정신과 낭만주의적 구도 사이의 — 를 합리화할 수는 없다. Eugene의 변모는 하층계급의 인간(Lizzie)에 의한 상층계급 인간의 변화라는 점에서 Dickens가 희망하는 사회적 변화에 대한 하나의 단초이자 예시가 되는데, 그의 물질적 삶의 메카니즘은 동일한데도 의식적 측면에서 그는 자신의 계급적 규정성을 완전히 벗어버릴 만큼 극단적으로 변화한 것으로 나타나고, 더구나 이 극단성은 Bella와 Silas의 플롯이 보여주는 낭만성과 겹쳐지면서 소설의 리얼리즘적 성과를 짊어먹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설 전체가 보여주는 사회상이 인간과 역사에 대한 변증법적 인식 속에서 탄생한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사회 하층과 상층의 인간성은 바로 당대의 지배적 경제, 사회, 문화적 구조와 맺 수 없는 관계로 그려져 있고, 그 구조는 어떤 인간성 — 가령 Fledgeby나 Riderhood의 — 에 의해서는 지탱되면서 다른 인간성 — Lizzie나 Boffin의 — 에 의해서는 도전받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 도전을 예술적으로 형상화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생각한 Dickens는 또한 당대의 지배적 예술이념에 도전하는 사람이기도 했다.